

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 규제현황조사를 위한 해외출장결과 보고

■ 출장기간 : 2019. 1. 19.(토) ~ 1. 26.(토), 6박 8일

■ 방문국가 : 프랑스, 벨기에, 독일

2019. 1.

I. 출장개요

□ 목적 : 유럽 선진국가의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법·제도 및 현황조사

□ 기간 : 2019.1.19.(토) ~ 1.26.(토), 6박 8일

□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

- 프랑스 : CNC(국립 영화영상센터)
- 벨기에 : UN AVMSD Unit I.1(EU 미디어정책유닛)
- 독 일 : FFA(영화진흥원)

□ 출장자 인적사항 : 곽경택 팀장, 김영기 대리

□ 출장일정

일 자	방문기관	주요사항
1.19.(토)	-	○ 인천 → 프랑스(파리)
1.20.(일)	-	○ 질의내용 정리 등 사전준비 회의
1.21.(월)	프랑스 국립 영화영상센터(CNC)	○ 비디오세 관련 법제도 현황, 부과대상, 역외조항 등 조사
1.22.(화)	EU AVMSD Unit I.1	○ 프랑스 → 벨기에 ○ AVMSD 및 디지털세 관련 주요사항 조사
1.23.(수)	-	○ 벨기에 → 독일(베를린) ○ 질의내용 정리 등 사전준비
1.24(목)	독일 영화진흥원(FFG)	○ 영화진흥법(FFG)에 따른 영화진흥분담금 주요사항 조사
1.25~26.(금,토)	-	○ 독일(테겔→프랑크푸르트)→인천

< 사전준비 회의 >



II. 프랑스 국립 영화영상센터(CNC)

□ 일 시 : '19. 1. 21.(월), 17:00 ~ 18:00

□ 방문기관 : 프랑스 국립 영화영상센터(CNC)

□ 주 소 : 291 boulevard Raspail, 75014 Paris, France

□ 면 담 자 : Julien Ezanno(국제정책국), Guillaume Vaille(예산, 재정 및 세무부국장) 외 1인

□ 목 적 : 일반세법상 개정된 비디오세에 대한 징수제도 관련 회의

□ 기관소개 (CNC)

- 국립영화센터(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, CNC) 모든 영화주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지원금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 수행
 - ※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1946년 10월 25일에 정부와 영화 종사자의 협력 설립
- 현재 영화(TSA), 방송(TST), VOD(비디오세) 등 3가지 산업에서 기금을 징수하여 콘텐츠 등 프랑스 영화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

□ 비디오세 개요

- (규제법령) 일반세법*(Code général des impôts)에서 프랑스 내에서 유상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비디오세 납부규정
 - * 재정부에서 조세로 걷어 들이기 때문에 영화영상법이 아닌 일반세법에 규정
- (징수주체) 재정당국은 납부대상자로부터 비디오세를 징수하고 있으며, 납부된 조세는 CNC의 TST로 배정하고 있음
 - ※ TST는 CNC에서 직접 징수하지만, 비디오세의 경우 재정당국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비디오세 징수관련 업무에서 CNC 역할이 없음

- 개정된 일반세법은 유튜브 뿐만 아닌 비디오와 관련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유튜브세라고 통칭하는 것은 맞지 않음

※ 또한, 법인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이며, 비디오세는 매출에 부과하기 때문에 양자간에 상관이 없다고 조사됨

- (주요용도) 징수된 비디오세를 TST로 통합하여 CNC 예산으로 배정되어 프랑스 영화산업 진흥 등 시청각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

- TST와 비디오세는 징수방식이 상이하지만, 프랑스의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특정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

□ 비디오세 부과기준

- (부과대상) 프랑스 소재지와 관계없이 영상저작물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영상과 관련된 일반매출을 기준하여 비디오세를 부과
- 또한 사업영역이 동영상 이외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비디오와 관련 있는 매출에만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음
- 만약 가입자 기반 수익과 광고수익이 섞여 있을 경우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매출액을 결정
 - ※ 넷플릭스 경우 가입자수가 명확하여 이를 기준하며, 유튜브는 무료서비스이므로 광고와 관련된 매출로 산정하고 있음
- 페이스북 등 동영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 대한 비디오세 부과는 확정되지 않았으며, 현재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
 - ※ 민감한 사항으로 답변을 회피하였으나, 비디오 서비스가 주된 경우 조세 부과 대상이라고 하며 주된 서비스의 판단기준은 재정부에서 결정한다고 함
- (징수율) 비디오세 징수율은 매출액의 2%를 기준하되, 포르노 및 폭력물은 10%까지 부과하고 있음
- (감경기준) 비디오 제공 사업자가 아마추어*의 경우 66%까지 감면하고 있으며, 매출이 10만유로 미만일 경우 부과를 면제하고 있음

* 유튜브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유튜버(개인)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, 유튜버를 통해 수익을 얻는 회사(유튜브)를 상대로 부과

- 아마추어 구분 관련하여 유럽연합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임

※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프랑스에서 발생한 아마추어 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해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공제를 결정하여 재정당국에 보고하고 있음

□ 자료제출 및 제재수단

○ **(역외조항)** 프랑스에서 발생한 매출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프랑스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조사됨

- 만약 아일랜드 소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, 프랑스와 아일랜드 행정담당부서와의 협약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고 함

○ **(자료제출)** 제출서류는 부가가치세 양식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외국기업의 경우에도 재정당국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있음

※ 재정당국에 자발적 신고를 하고 있으며,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컨트롤(조사 및 검증) 실시함. 다만, 세금이 큰 기업은 작년부터 계속 소통중

- TST의 경우 CNC 홈페이지에 매출자료 등을 직접 입력하고 있으나, 비디오세의 경우 재정당국에 직접 신고하고 있음

- CNC는 재정당국으로부터 징수금액과 업체명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받으며,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

○ **(축소신고 조치)** 조세를 축소신고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컨트롤(조사 및 검증) 절차를 진행함

- 우선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을 통지하고, 미제출시 국제 협약에 의해 해당 나라의 권한을 가진 기관과 연계해 직접 검증 및 조사 실시

○ **(미이행시 제재수단)** 자료 미제출시 조사 절차에 들어가며, 만약에 조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맺어진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협조를 받아 재정부에서 조사하여 결정함

○ **(납부실적)** '18년 넷플릭스에서 비디오세를 납부(금액 미공개)으나, '19년 3월까지 정확한 조세납부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 예정

※ 유튜브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업무상 비밀사항으로 언급을 회피하였으나,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조사됨

- 조세저항 관련 넷플릭스의 경우 반발보다는 납부를 통해 크리에이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함

※ 다만,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회사는 회사별로 입장이 상이할 수 있음

< CNC 회의 사진 >



Ⅲ. 독일 영화진흥협회(FFA)

- 일 시 : '19. 1. 24.(목), 15:00 ~ 16:00
- 방문기관 : FFA(Filmförderungsanstalt) 영화진흥협회
- 주 소 : Große Präsidentenstraße 9. 10178 Berlin
- 면 담 자 : Lydia Tortz-Franz(FFA 부국장), Britta Norenberg(시장조사 담당관), Ismene Finkmann(법률고문) 외 1인

□ FFA 소개

- 영화진흥법(Filmförderungsgesetz, FFG)에 따라 설립된 국립영화진흥기관으로서 독일영화 산업구조 강화, 영화의 질과 다양성을 보장하고,
 - 유럽 및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화, 비디오산업 및 텔레비전산업 등으로부터 영화분담금을 징수함



※ FFA는 1968년 설립되어 지금 현재 베를린 소재하고 있으며, 영화진흥법(FFG)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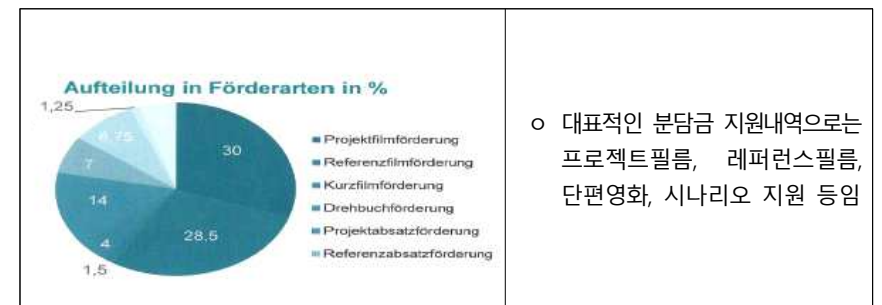
□ 영화분담금 개요

- (규제법령) 영화진흥법(Filmförderungsgesetz, FFG)에 따라 영화관, VOD사업자, TV방송프로그램판매자 등에게 영화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
- (징수주체) 영화분담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아닌 FFA에서 영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직접 징수하고 있음



- FFA 업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, ① 영화를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, ② 다른 기관의 프로젝트를 규율 및 총괄하는 업무, ③ 영화산업 지원(시장조사, 영화표절방지, 청년영화인지원, 필름영화의 디지털), ④ german films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독일영화 홍보 등 임

- (분담금용도) 독일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직접 지원을 하고 있음



□ 영화분담금 부과기준

- (부과대상) 영화관(제151조), 프로그램제공사업자/VOD(제152조~제153조), TV-Sender/TV방송프로그램판매자(제154조~제157조)를 대상으로 부과



- VOD 사업자 중 유튜브와 같이 비디오 셰어링을 하는 사업자도 내용물이 저작권이 있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분담금 부과대상임
- 유튜브 등 특정 플랫폼만이 아닌 동영상을 셰어링하는 모든 플랫폼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 논의 중에 있음

※ 유튜브(개인)의 광고수익에 대한 분담금 부과여부 관련 아이디어는 타당하나, 향후 많은 논의가 있어야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
- SNS(페이스북 등)에서 동영상서비스를 할 경우 분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영화를 보여주기 않을 경우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음

※ 다만, 영화만이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상영물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이 됨

- (징수기준) 독일 영화분담금은 영화와 직접 관련된 전년도 세후 수익을 기준하여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음

※ 예컨대, 사이트를 통해 우편물을 통해 주고받아 발생한 수익 등은 제외됨

- (징수율) 순매출액이 2,000만 유로 미만의 사업자는 1.8%, 2,000만 유로 이상 사업자는 2.5% 징수율을 적용하여 부과함

※ 다만, 매출액이 50만 유로 이하의 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함

Videoabrufdienste (§ 153 FFG)	
Filmabgabe	
• Berechnungsgrundlage für den Abgabesatz ist der Nettoumsatz des Vorjahres	
• Höhe der Filmabgabe:	
– Bemessungsgrenze: > 500.000 €; darunter abgabefrei	
– Abgabesätze gestaffelt:	
➢ bis 20 Mio. € = 1,8%	
➢ ab 20 Mio. € = 2,5%	
• Meldung der Umsatzzahlen bis zum 10. des Folgemonats	
• Falls keine Meldungen abgegeben werden, wird die Filmabgabe geschätzt und Heranziehungsbescheide im Wege der Schätzung erlassen	

□ 자료제출 및 제재수단

- (역의조항) 해외사업자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, 독일어를 지원하고 있는 VOD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이 됨

※ 국내사업자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, 독일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, VOD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을 의미

- 또한, 그 나라에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때* 대상이 됨

* 독일에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업체가 방송사업을 하는 경우

- (자료제출) 영화진흥법 제164조에 따라 영화분담금 의무이행자는 FFA에 필요정보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

- 매출을 계산후 다음달 10일까지 자발적 신고를 해야하며,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익추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징수율이 정해짐

- (미이행시 제재수단)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, 행정절차법(Verwaltungsverfahrensgesetz) 제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, 이

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과태료 및 영업이익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,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감



- 독일어 서비스를 하는 역외사업자의 경우에도 요건이 해당될 경우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강제징수절차 진행
- FFA는 강제집행 대상임을 통지하고, 강제집행업무는 관세를 징수하는 세무청에서 담당하며, 역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
 - ※ 재산이 해외에 있는 역외사업자에 대한 강제징수(압류, 서비스정지)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음
- **(납부실적)** 아마존 및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징수실적 문의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수사례는 없다고 대답을 회피
- 다만,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신규로 징수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응답
 - ※ 또한, 넷플릭스에 대한 유럽법원 판결 후 그에 따라 FFA에서는 법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며,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간에 노력 중이라고 응답

< FFA 회의 >



IV. 벨기에 EU AVMSD Unit I.1

□ 일 시 : '19. 1. 22.(화), 11:00~12:00

□ 방문기관 : EU AVMSD Unit I.1

□ 주 소 : Beaulieu laan 25, 1160 Bruxelles Brussel

□ 면 담 자 : Gianluca Papa(디지털 경제 및 기술 정책 담당자),
Dan-Mihai Chirila(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정책 법무 담당자)

□ 방문목적

- 2016년 5월 25일 유럽위원회가 “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(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, AVMSD)를 채택하여 리뷰를 진행함

※ 동 기관에서는 유럽 내 디지털 단일 시장 형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였으며, 관련 법령의 제·개정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됨

- 이에 유럽 내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법·제도 형성과정, 현황 및 최근 제기된 디지털세 방안에 대한 전망을 파악하고자 함

□ 기관소개 (EU AVMSD Unit I.1.)

- EU의 AVMSD Policy Unit I. 1은 디지털 싱글마켓(Digital Single Market)을 목적에 부합하는 시청각 및 미디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설립
- AVMSD지침의 개정 업무를 담당하며, 미디어 다원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, 언론 및 미디어 자유를 위한 유럽 센터 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

□ AVMSD 관련

- **(대상확대)** 새로 개정된 AVMSD에서는 기존의 TV 이외의 VOD 에도 Film Contribution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**(재정적기여)** Film Contribution에는 어떠한 조세도 포함되지 않음 즉, EU에서는 조세부과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EU 회원국들이 AVMSD를 국내법을 규정하도록 기준만을 정함
- **(30% 쿼터제도)** 측정기준 관련 EU 회원국 논의 중에 있으며, 내년에는 측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
 - 시간별로 측정 또는 에피소드 별로 측정 등 EU 회원국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 중
- **(역외조항)**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소재하는 VOD 서비스(역외사업자)에 대한 적용여부는 EU 회원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
 - 즉, AVMSD는 EU 회원국 내의 공통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, 역외 사업자들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회원국들의 재량임
- **(Video Sharing)** VOD 사업자의 경우 30% 쿼터제를 적용하여 Film Contribution을 요청가능하나, Video Sharing 플랫폼 사업자(유튜브)는 제외됨

□ 디지털세 관련

- **(이중부과)** 이미 기존 소재지에서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, 디지털세를 또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(Double Taxation)가 아니라고 판단
- OECD BEPS 프로젝트*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, 국제 조세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

*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: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(조세가 낮은 특정지역으로 이전)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

- **(진행현황)** EU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, 회원국들 내에서도 디지털세가 잠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
 - 사업자들이 디지털세를 납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, 그에따라 손해자도 되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
 - ※ 일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, 경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
- **(향후계획)** 일부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 도입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
 - 이 경우를 대비하여 ①찬성하는 국가들만 디지털세를 도입 ②유럽 위원회(Council) 투표시스템(voting system)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
 - ※ 위 대안들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며, 현재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임
- **(규제규범)** 디지털세와 WTO 등 국제규범과의 저촉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반응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음
 - 또한, 미국도 새로운 규칙(Rule)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와 WTO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

< EU AVMSD Unit I.1 회의 >



V. 시사점

□ 부과대상 확대

- EU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VOD사업자 등을 대상을 조세 및 분담금 등의 재정적 기여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 등을 개정하여 적용을 준비하고 있음

□ 역외조항

- 프랑스의 경우 소재지와 관계없이 프랑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일반세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비디오세 부과를 진행중임
- 독일은 영화진흥법(FFG)에 근거하여 역외사업자의 경우에도 독일어 서비스를 할 경우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분담금을 부과대상으로 규정
- 향후 국내 범용인터넷동영상사업자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 등을 마련 할 경우 역외사업자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가능

□ 실효성 확보수단

- 프랑스 및 독일의 모두 현재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명확한 징수 실적이 미공개상태이며, 다만 분담금 부과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 중임
- 특히 독일은 강제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에 있어, 현시점에서 실효성 확보방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바, 국내 적용시에도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